

# KRIVET Issue Brief

발행인 박영범 | 발행일 2012년 12월 15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제17호 2012. 12. 15

## 시설 청소년의 자립기술과 직업기초능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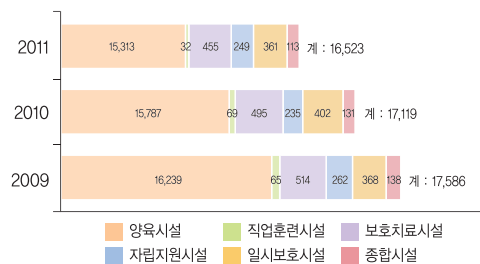
- 시설 퇴소 청소년(관련법에 따라 만 18세 퇴소)의 취업은 비교적 단순직(단순노무직 33%, 서비스직 19.6%)에 머물러 자립곤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.
- 시설 청소년의 자립기술 수행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숙달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, 특히 '직장생활기술', '돈 관리기술', '진로탐색 및 취업기술'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.
- 시설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 수준과 자립담당자 및 기업의 직업기초능력 요구수준을 비교한 결과 '수리능력'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.
- 이에, 시설 청소년의 자립에 바탕이 되는 자립기술과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단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됨.

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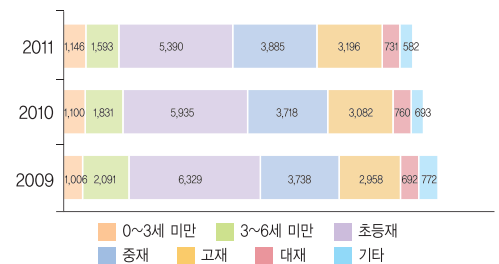
### 시설 청소년의 추이와 취업 특징

#### | 자립 당면 시설 청소년 증대로 인한 자립지원 중요성 부각

-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은 2009년 총 17,586명에서 2011년 총 16,523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.
- 그러나 18세 퇴소 연령에 당면한 중·고교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자립의 필요성이 강조됨.



[그림 1]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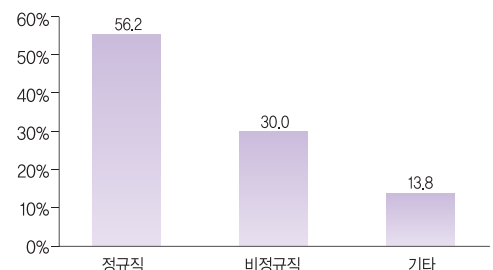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구성 현황

| 출처 |

보건복지부(2010, 2011, 2012). "아동 복지시설 현황"을 재구성

#### | 시설 퇴소 청소년의 고용의 질 저하

- 2011년 퇴소 청소년의 취업형태 현황을 살펴보면, 정규직이 56.2%, 비정규직 30.0%, 기타 13.8%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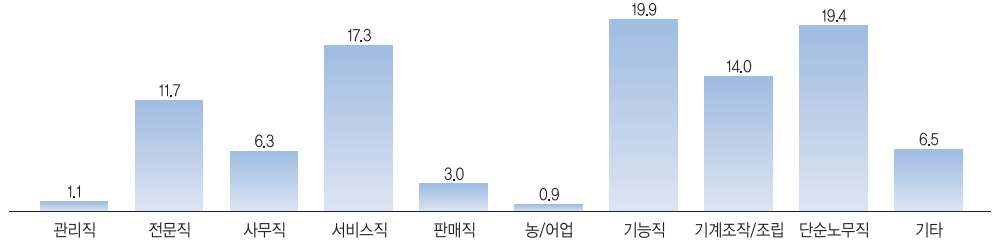


[그림 3] 퇴소 청소년 취업형태

| 출처 |

보건복지부·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(2011). 시설퇴소아동 실태조사 및 분석

- 취업분야도 기능직 19.9%, 단순노무직이 19.4%, 서비스직 17.3%로 단순직에 머물러 자립근란이 예상되며, 이에 따른 지원과 후원의 확대가 필요함.



[그림 4] 퇴소 청소년 취업분야

- 또한, 최근 강력범죄에 노출되는 퇴소 청소년 비율이 늘고 있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자립지원책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됨.

### 분석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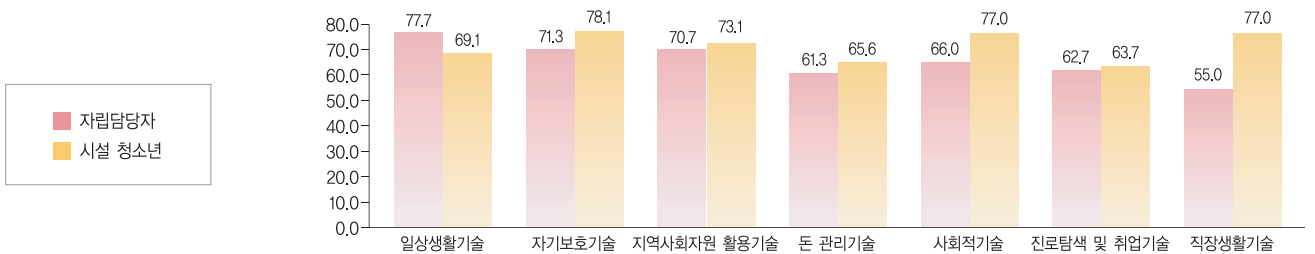
- 분석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(2012)의 ‘시설 청소년 자립 실태 조사’
  - 조사대상: 서울과 경기도 소재한 65개 아동양육시설의 자립담당자와 만16세 시설 청소년
  - 응답자 규모: 자립담당자 49명, 만16세 시설 청소년 236명
  - 조사기간: 2012.7.9~7.13

## 02

### 자립기술 수준

#### 시설 청소년의 자립기술 수준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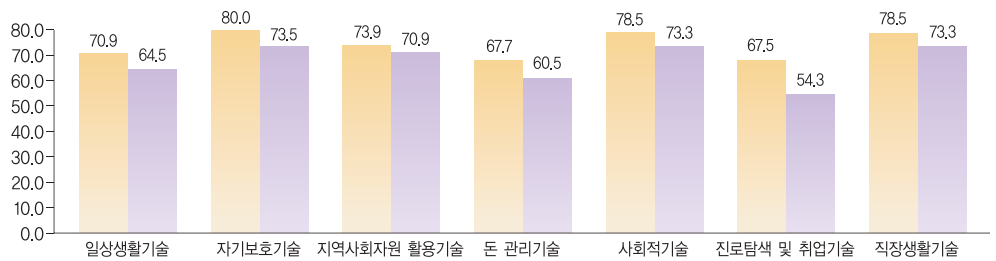
- 시설 청소년의 자립기술 수행수준은 ‘일상생활수준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자립담당관의 평가가 시설 청소년의 인지도보다 낮게 나타남.
- 특히, 자립담당자 평가를 기준으로 볼 때, ‘직장생활기술(55점)’, ‘돈 관리기술(61.3점)’, ‘진로탐색 및 취업기술(62.7점)’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.



[그림 5] 자립기술 수준

#### 진로결정이 시설 청소년의 자립기술 수준에 미치는 영향

- 시설 청소년 중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의 경우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, 일상생활기술, 자기보호기술, 돈 관리기술, 사회적기술, 진로탐색·취업기술, 직장생활기술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.
- 이는 시설 청소년의 자립기술 향상에 진로결정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.



[그림 6] 진로결정 여부에 따른 자립기술 수준

# 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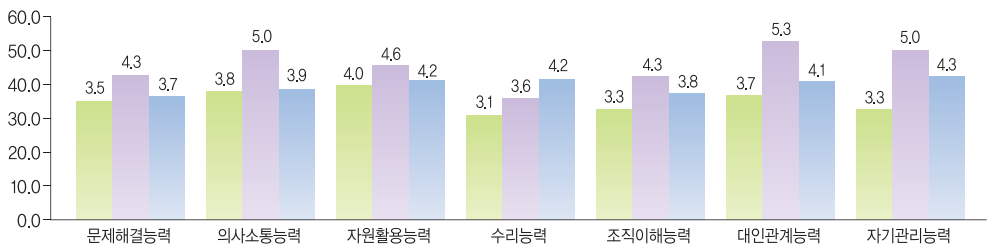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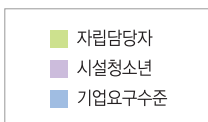
## 직업기초능력 수준

### 시설 청소년의 낮은 직업기초능력

- 자립담당자가 인식하는 시설 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중간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남. 특히, '수리능력(3.1점)', '조직이해능력(3.3점)', '자기관리능력(3.3점)' 이 취약하다고 인식함.
- 자립담당자가 평가하는 시설 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은 기업체에서 고졸자에게 요구하는 수준<sup>1)</sup>보다 모든 영역에서 낮게 나타남.
- 시설 청소년은 대다수 영역에서 자립담당자의 평가와 기업 요구 수준보다 본인들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.
- 시설 청소년은 여러 직업기초능력 중 수리능력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음.

각주 |

1) 박동열 외(2008)가 '전문계 고교생의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'를 개발하면서 제시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영역별 직업기초능력수준 점수임. 7점 만점.



[그림 7] 직업기초능력 수준

주 |

7점 척도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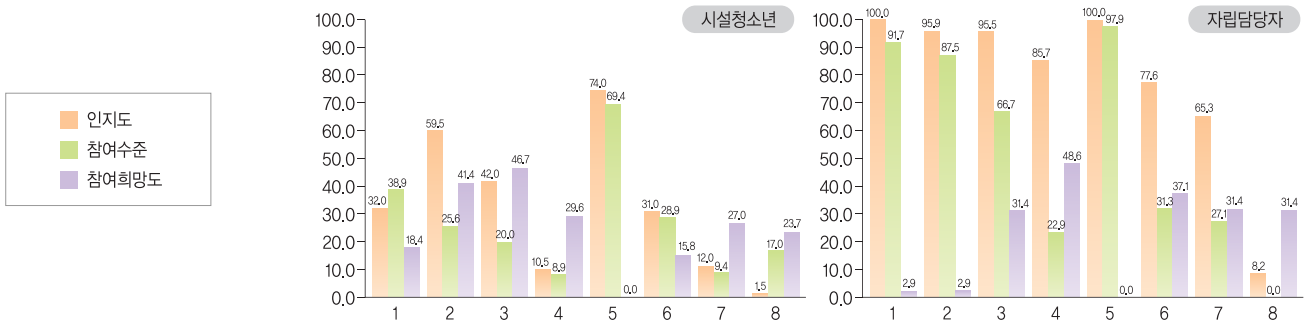
# 04

## 정부 자립지원책 인지도 · 참여수준 · 참여희망도

### 시설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별 인지도 · 참여수준 · 참여희망도 비교

- 자립담당자와 시설 청소년 모두 정책인지도가 높을수록 관련 정책의 참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.
- 특히,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'디딤씨앗통장' 과, 'Ready? Action'의 인지도와 참여가 높았음.
  - 면담조사 결과 홍보부족으로 해당 정책의 인지도가 낮은 경우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, 지원정책 특성별로 홍보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.
  - 참여에 따른 성과관리가 경직되어 있고 행정절차가 복잡한 정책은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면담조사 결과 나타남.
- 참여를 희망하는 정부 지원책으로 자립담당자의 경우, '바람개비서포터즈', '두드림존' 순으로 높은 반면, 시설 청소년은 '자립체험관' (46.7%), '자립지원정착금' (41.4%) 순으로 나타남.

- 이는 자립담당자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반면, 시설 청소년은 체험중심과 경제적 비용 지원 등의 지원책을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



[그림 8] 정부 자립지원책 인지도 · 참여정도 · 참여희망도

1. Ready? Action : 보건복지부 지원책으로 아동의 자립의지함양과 자립능력 활성화로 퇴소 이후를 준비하고, 퇴소 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사례관리와 필요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
2. 자립지원정착금 : 보건복지부 지원책으로 시설 퇴소를 앞둔 아동·청소년들이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 지원
3. 자립체험관 : 보건복지부 지원책으로 시설의 유휴공간 및 자립생활관, 공동생활가정 시설 등을 활용한 공간으로, 퇴소 후를 대비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자립 준비 체험
4. 바람개비서포터즈 : 보건복지부 지원책으로 멘토링 자원봉사활동 휴먼네트워크 사업
5. 디딤씨앗통장 : 보건복지부 지원책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자립하게 될 때, 학비, 주거비, 직업훈련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 적립
6. 두드림존 : 여성가족부 지원책으로 만 15~24세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지도, 동기부여, 경제교육, 직업탐색, 기술교육, 학업지속 연계, 사회진출 등을 위해 직업훈련과 자격 취득 지원
7. 뉴스타트 : 고용노동부 지원책으로 취업으로 청년층을 위한 1단계 상담·직업지도, 2단계 직장체험·직업훈련, 3단계 취업알선 지원책 실시
8. 교육희망사다리 :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책으로 저소득층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

05  
시사점

- 시설 청소년의 자립에 요구되는 기술 중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‘직장생활기술’, ‘돈 관리기술’, ‘진로탐색 및 취업기술’ 향상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.
- 시설 청소년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은 시설 청소년의 발달 특성 및 연령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의 반영이 요구됨.
- 시설 청소년의 자립기술 향상에 진로 결정 유무가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을 고려할 때, 이들의 진로 지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의 실행적인 직업교육 및 훈련은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진행과 도입이 요구됨.
- 시설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직업교육 및 훈련을 위해서는 심리·정서적 지원과 함께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준비 후, 실생활 체험 중심에서 점차적인 전문 직업훈련으로의 진행이 요구됨.
- 시설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별(여성가족부-보건복지부-교육과학기술부-고용노동부 등) 협력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.
  - ‘범부처 차원의 시설 청소년 자립 지원 위원회(가칭)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부처별 특성에 따라 시설 청소년의 자립 지원책을 조정하고 협력하여 운영

변 속 영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)